

세이레이노타키 폭포(잠자리 폭포)

세이레이노타키 폭포는 높이 50m의 폭포로, 깎아지른 듯한 절벽 표면과 급류로 매끄러워진 돌 수로 위로 세차게 떨어집니다. 맑은 날에는 폭포에서 부서지는 물보라로 작은 무지개가 생기기도 합니다.

전설에 따르면, 일본의 21대 천황이었던 유랴쿠 천황(재위 기간: 417년경~479년)이 이 폭포의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. 폭포 근처에서 사냥을 하다가 화살을 쏘려던 찰나에 쇠파리에게 팔꿈치를 물렸습니다. 그때 잠자리 한 마리가 마치 경호원처럼 쩍싸게 나타나 파리를 잡았습니다. 이에 크게 만족한 천황은 이 지역에 ‘아키쓰노오노’, 즉 ‘잠자리의 들판’이라는 이름을 붙였고, 나중에는 폭포에도 이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

세이레이노타키는 접근성이 좋은 폭포 중 하나로, 아키쓰노오노 공원 주차장에서 걸어서 5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. 아키쓰노오노 공원에는 피크닉하기 넓은 잔디광장과 어린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얇은 개울, 벚나무 가로수가 드리워진 산책로가 있습니다.

짧은 다리를 지나면 석제 도리이(신사 입구에 세운 기둥 문) 여러 개가 폭포로 이어지는 길 입구에 놓여 있습니다. 폭포에는 전망대가 세 곳 있는데, 그중 가장 낮은 전망대는 폭포 맨 아래, 용소 근처에 있습니다. 중간 전망대에서 이어지는 협로는 자그마한 목조 사원으로 연결됩니다. 사원 안에는 폭포를 찾는 슈겐도 산악 신앙 수행자들이 숭상했던 부동명왕과 자오 다이곤젠 신상, 슈겐도의 창시자인 엔노 교자(634년~701년경)의 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.